

도내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 제공

전북중기청, 24일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등 32개사 참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도내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오후 2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19 전북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소재·부

품·장비 분야 기업과 우수 중소벤처기업 32개사가 참여하여 연구직 및 사무·생산직 등 총 100여명의 신규 채용을 목표로 면접과 기업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기업 모집요강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에서 구직자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는 면접비 지원 부스에서 신청을 통해 1인당 2만원의 면접비가 지급된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채용

면접 이외에도 부대 행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상담, NCS 안내 및 AI면접 체험 등을 통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력서 사진촬영, 컬러리전단을 통한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구직자들은 다양한 취업기회를 한자리에서 제공 받을 수 있어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내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경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실에서 도내 중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의 적성과 흥미·진로를 찾아'

전은 장학문화재단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큰 호응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경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실에서 도내 중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는 적성 진단, 진로설계, 프레지더 프로그램, 리더십 스피치와 IT, 방송, 뷰티, 의료, 법률 등 각 분야의 멘토 특강 그리고 저축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만원의 꿈Dream까지 청소년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드론 파일럿, 3D프린팅 전문가, 아나운서, 선에스틱스 원장, 푸른안과 원장, 더원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직업군별 다양한 정보와 경험담 등을 나누었고, 은행에서 계좌 입금해보는 체험을 하여 실질적으로 저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었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더 재미있고 보람찬 캠프였다"며 또한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법도 배워 저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전까지 100만원을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경우 이사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을지태극연습 성과·충무실시계획 작성 토의

전은, 도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초청행사 실시

창립 50주년 기념해 '안전문화 나눔'도 열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7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북지역 주요기관과 연계한 충무실시계획 발진방안 토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김진기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전북도청 정

성영 민방위팀장, 국민연금공단 김명구 비상계획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 주요기관과 연계한 충무실시계획 발진방안 토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19일 오전 9시부터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안전문화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심폐소생술 체험코너를 운영하며, 미세먼지 마스크, 화재대피 손수건, 여행용 구급상 등 1만여점을 일반 등산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김윤상 기자

농산물 경락가격 실시간 알림

전북농협은 농협상호금융이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농산물 경락가격 실시간알림' 서비스를 'NH로뱅크·로팍'을 통해 제공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을 출하하여 경매가 되면 그 즉시 경락가격을 출하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NH로뱅크만 유일하게 제공하며, PUSH 발송 기능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농산물 출하실적 조회는 농협이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판매되는 '계통출하' 실적만 조회되었지만, 금차 서비스에 '경락가격, 공판장, 로컬푸드' 출하처가 추가되어 총 4개로 세분화된 실적조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LX, 중기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LX 전주 본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농진청, '쌀 소비 확대 위한

열린소통포럼' 오늘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오늘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소비자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열린소통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은 농촌진흥청 국민디자인단 '쌀의 팔팔(八八)한 변신, 미(米)리클' 탐에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소비자적 관점에서 쌀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이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쌀 중심 식생활(한식)의 건강 영향과 효과 △다양한 가공용 쌀 품종 개발 현황 △수요자 참여형 쌀 품종 개발(SPP) 현황의 3개 주제 발표와 함께 현장감 있고 구체적인 토론 목적으로 쌀 가공제품 시식도 병행한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목적으로 쌀 중심 한식의 우수성과 고객 니즈 맞춤형 쌀 품종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쌀 소비 확대에 필요한 연구, 정책지원 방향을 소비자와 함께 재정립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개발공사

자위소방대 훈련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난 18일 전북개발공사 사옥에서 팔복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북개발공사 사옥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전 직원들이 자위소방대원의 일원으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실전과 같이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팔복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소방차와 구급차, 소방요원들을 동원하여 훈련의 실제감을 더했다.

소방훈련은 직원들의 초동대응, 대피 유도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상황별 대응체계를 중점 점검했다.

소방훈련 실시 후, 팔복119안전센터의 훈련강령과 함께 소방훈련의 중요성과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으며, 팔복119안전센터와의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팔복119안전센터는 현장제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사과, 지금 맛보세요'

aT, 이달의 제철농수산물로 선정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이달의 제철농수산물로 피로회복과 장(腸)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과를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과는 국산 과일 중 재배면적이 가장 넓고 소비량은 감귤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은 10월 중순 이후 수확하는 만생종 후지(부사)로 사과 전체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9~10월에 출하되는 홍로, 7~8월에 출하되는 쓰가루(아오리) 등이 있다.

사과는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 피로물질 제거에 좋은 유기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장운동에 도움이 되는 펙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껍질과 껍질 바로 밑 과육에 펙틴, 비타민C 등 다양한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10월 사과(홍로) 소매가격(월평균)은 1만8249원/10개(10월 16일, 상품 기준)로 평년가격(2만664원



/10개)과 비교해 12% 가량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월 초중순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다가 이후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좋은 사과를 선택하는 요령으로는 표면에 빨갛고 꼭지가 푸른색을 띠며,

특히 꼭지 반대부위인 '체오'라는 부위의 색이 옅은 황록색인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를 오래두고 먹으려면 사과의 수분증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데 이를 위해서는 날개 단위로 위생백이나 랩으로 밀봉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 태평 아이파크' 중기 장기재직자 우선 제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태평 아이파크'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추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2세대(확정추천 22세대 + 예비추천 10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공급부터는 제출 방식이 다양해졌다. 기존과 같이,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31일(목) 18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넓은 운전석 공간·다양한 편의성 '기대'

현대차, 준대형트럭 파비스

생산 1호차 전달식 개최

판토스 신승덕씨가 주인공

현대자동차는 지난 18일 전주출고센터에서 준대형트럭 파비스(PAVISE) 생산 1호차 전달식을 개최했다.

현대자동차가 준대형 상용차 중흥을 목표로 중형트럭과 대형트럭의 장점을 모아 새로 개발한 파비스 1호차의 주인공은 종합물류기업 판토스 신승덕씨가 선정됐다.

이날 1호차를 전달 받은 신 씨는 "대형트럭 수준의 넓은 운전석 공간과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 장시간 운전하는 트럭 운전자들에게 적합하고, 5.5~13.5톤까지 적재 가능해 선택폭이 넓는데다가 다양한 특장차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파트너로 파비스를 선택했다"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대자동차가 5년 여의 개발기간 끝에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준대형트럭 파비스는 경제성과 실용성은 물론 넓은 적재공간과 각종 첨단 안전 사양 등을 충족시킴으로써 한층 높아진 시장과 고객들 요구를 적극 반영한 개성이다.

중세 유럽 정방형의 커다란 방패를 의미하는 파비스는 중형 메가트럭과 대형 엑시던트 사이급 준대형 트럭으로 5.5~13.5톤 적재가 가능하며, 대형트럭 수준의 운전석 실내고 1,505mm, 공간 6.7m를 바탕으로 레이아웃을 최적화해 동급 최대 운전석 공간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최대출력 325PS의 7리터급 디젤엔진을 탑재해 힘을 한층 강화했고, 일부 대형트럭에만 적용되던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Forward Collision-



Avoidance Assist)와 차오리탈경고(LDW, Lane Departure Warning) 등 각종 첨단 안전사양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공기압 80% 이하 시 저압경고 알림, 타이어 온도 110도 이상 경고 알림 등 시스템을 통해 트럭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돕고, 트럭 운행에 최적화 된 운행경로를 제공하는 '상용차 전용 내비게이션' 등 적용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한층 상품성이 업그레이드 된 준대형트럭 파비스를 발판으로 준대형 트럭 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수입차 공세가 거센 안방시장을 가해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이종복 기자